



중 국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11)

배 순 덕

산해관(山海關)에서 시작하여 멀리 고비사막에 이르기까지, 6천킬로미터나 되는 길고 긴 성벽 만리장성(萬里長城). 역사 속의 술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불가사의한 노대륙의 유적을 보게 될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가슴이 설렸다.

여섯시에 일어나 이른 아침을 먹고 숙소가 있는 북경을 출발하였다. 버스로 두시간여를 달려서 장성에 당도했다. 가는 길에, 고도가 점점 높아지고 안개가 조금씩 짙어지더니 장성(長城) 아래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몇미터 앞의 나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히 깔렸다. 휘적휘적 해험을 치듯이 안개를 휘저으며 장성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높이가 7.8m에 폭이 5.8m, 말 몇마리가 나란히 서서 다닐 수 있는 너비에는 말 대신에 오르내리는 관광객들로 그득했다. 요소소소마다 적군의 동태를 살피볼 수 있는 망루대가 있고 성벽 가장자리엔 총을 쏠

수 있는 총구멍이 뚫려 있었다. 병사들은 망루대 아래층에 기거하면서 망도 보고 전투도 하였을 것이다.

만리장성은 세계 일곱개의 기적 가운데 하나로, 달에서 볼 때도 그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인공건조물이라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

그 옛날, 진나라의 시황제는 장군 몽염으로 하여금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황하의 북쪽으로 격퇴케 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다음 해인 기원전 2백 14년에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는 간단한 토벽이었다. 왜냐하면 흉노는 기마민족이었으므로 말이 넘지 못할 정도의 높이이면 그것으로 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한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다가 몽고족의 재침입을 두려워한 명대(明代)에 이르러 서야 장성을 다시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힘썼다.

오늘날 우리가 본 팔달령(八達嶺)의 벽돌로 된 장성은 바로 명나라 때 다시 쌓아진 것이니 그것도 벌써 6백여년의 역사가 흘렀다.

시 황제 당시 2천만의 인구 중에 십분의 일인 200만명이나 강제 동원된 이 성곽에는 얼마나 슬한 애환이 깃들어 있을까? “長城道傍多白骨”이라고 읊은 당나라의 시인 왕한(王翰)의 시귀절은 장성의 축조에 얽힌 맹강녀(孟江女)의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맹강녀는 범기량이란 사람의 아내였다. 범기량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성의 건설을 위해 끌려갔다. 북방의 겨울은 매우 혹독했다.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맹강녀는 남편을 위한 옷가지 등을 준비하여 먼 길을 나섰다.

갖은 고생 끝에 공사장에 도착해 보니

성문에서는, 성벽이 완전히 축조될 때까지는 아녀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일하던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며 그녀의 앞을 막았다.

하는 수 없이 석달동안 밖에서 남편을 기다렸으나 남편은 이미 오래 전에 죽어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성벽아래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다. 그때 들던 하늘에서 비락이 떨어지며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 곳에는 수 많은 시체가 쌓여 있었다. 그리하여 슬픔에 찬 맹강녀는, 겨우 남편의 시체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한걸음 한걸음 역사의 자취를 더듬으며 팔달령의 장성을 거슬러 올라갔다. 흙을 나르고, 다지고, 돌을 깔고, 연와를 굽고... 이름없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 오랜 세월 이어진 장성의 축조는 수천, 수만의 맹강녀를 낳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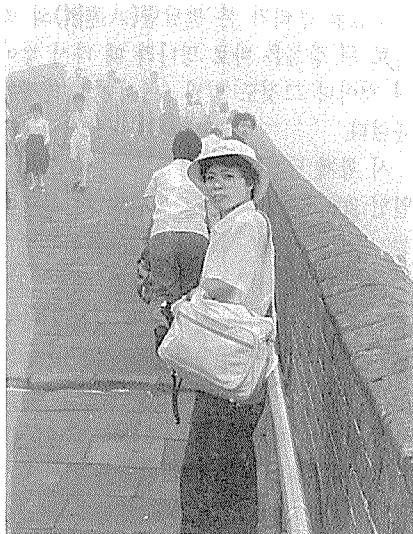
◀ 만리장성(萬里長城).
진시황은 당시 2천만의 인구 중에 십분의 일인 이백여만명을 강제 동원하여 이 성을 쌓았다고 한다.

그 때 장성을 축조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그 주검마저도 고향이나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성벽 아래에 함께 묻혔다는데, 오늘날 중국의 궁지이자 자랑인 이 역사적인 유적을 찾는 관광객중에 자신이 밟고 선 성벽에 얽힌 맹장녀의 통곡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가쁜 숨을 몰아 쉬며, 회색빛의 정교한 연와로 만들어진 팔달령의 정상에 올라섰다. 그러나 자욱한 비 안개 때문에 산의 정상을 따라서 구비구비 이어지는 거대한 장성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산, 보이지 않는 성벽,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나는 보이지 않는 장성의 모습에서 이면에 감추어진 더 많은 것들을 보았다.

사람들은 눈으로 만리장성을 보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눈앞에 드러난 외형만으로도 가능한 일인가? 아닐 것이다.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의 밑으로, 빙산 처럼 감추어진 피와 땀과 고통의 무게가 그 외형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위대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진데 만리장성의 위대함을 받쳐주는건 진시황도 명왕도 아닌 수 백만 이름없는 백성들의 피땀에 얼룩진 목숨의 땀가이다.

그때 문득 안개 속 어디에선가 가느다랗게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자 주위는 삼시간에 軍馬의 발굽소리에 휩싸이고 이어지는 진군의 북소리, 승리의 통쾌함과 소리없는 흐느낌, 혹은 통곡소리,



▲萬里長城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그 자욱한 안개 만큼이나 사람도 많았다.

이런 것들이 엇갈리며 마음은 잠시 그 옛날 축조하던 당시의 성벽을 따라 달렸다.

그 환영을 깨뜨리며 어깨를 흔드는 손이 있어 돌아다보니 먼저 올라갔던 바군이 땀에 젖은 모습으로 서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먼 곳까지 달려가서 장성의 벽에 다 자신과 애인의 이름을 새겨놓고 왔노라 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의 철없음을 건너다보며 멍한 시선으로 웃을 수 밖에 없었다.

고개를 돌려 아래 쪽을 내려다보니 몰려가는 안개사이로 두어필의 말이 사진사 곁에서 여물을 먹고 있었다. 관광객을 위한 사진촬영용 말(馬)이다. 복적대는 관광객과 잡상인들의 떠들썩한 소리에 밀려 다시 산 아래로 발길을 돌렸다.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여정에 대한 간단한 메모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새벽3시까지 은사님과 지기들에게 보낼 편지와 엽서를 썼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5시 30분에 다시 일어났다. 일층 프런트에 돈과 편지를 맡기고 북경국제공항을 향해 출발을 서둘렀다.

상해에서 북경까지 여행기간 내내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조선족 가이드인 김선생과 정선생이 멀찌감치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짐을 들고 통관검사대 앞에 줄을 섰다. 덜커덩거리며 돌아가던 화물검사대의 고장난 체인이 자주 멈추어 섰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반사인듯 임박해오는 비행기 탑승시간과는 무관하게 중국인들의 일처리속씨는 한 없이 느긋해보였다.

조급해진 사람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줄은 삽시간에 뒤죽박죽이 되고 주변은 수라장이 되었다. 밀고 밀리고 정신없이 뒤섞인 속에서 겨우 우리 차례가 되는가 싶었는데, 느닷없이 덩치 큰 서양사람 하나가 큰 가방을 앞세우고 내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짐을 놓치며 나동그라질뻔 했다. 김선생이 달려와 부축해주며 통관대 쪽으로 등을 밀어줬다. 이번에는 가방이 사람들 틈에 끼어 빠지지 않는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정 선생도 달려와 몸으로 사람들을 막고서 함께 밀었다.

가방끈이 끊어지고 옷의 단추가 떨어지고, 일행의 대부분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통관대를 거치고 나니 비행기가 연착이라고 한다. 기가 막혔다. 공복인데다가 몸싸움까지 하고 난 탓에 온 몸이 허탈해졌다.

옷을 추스리고 짐을 확인하고 난 후에, 쓰다남은 태환패는 공항환전소에서 다시 달러로 바꾸었다.

비행기가 연착이라는데 얼마만큼 연착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답답해 보일 정도로 여유작작한 중국사람들. 모두들 허름한 옷차림이어도 비굴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 특유의 여유 때문일까?

대기실 창가에 걸터앉아 잠시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 보았다.

유원, 줄정원, 이화원 등...

가는데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정원과 연못에 동전을 던져 넣던 중국인들 생각이 났다. 그 사람들은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 속에, 수련잎 위에, 심지어는 대문 앞에 장식용으로 놓여진 아주 작은 통 속의 수련과 물에도 동전이나 지폐를 가득 던져 넣었다. 동전을 던지며 그들은 무엇을 기원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가족의 건강? 행복? 자식의 장래? 아니면, 공산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진, 지금의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원한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북경(北京)-서울보다 4백년이나 더 긴 일천년의 유적과 역사적 무게를 가진 도시-

언제 출발할런지도 모르는 비행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 탑승객 대기실의 창 너머로 내다보이는 북경공항의 활주로 풍경은, 출국통관대를 나올 때의 북적거림과는 달리 그지없이 한가로웠다. **㉔**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